

#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3년 3월 4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인 윤일환  
디자인/제작 비온후(051-645-4115 / beonwhobook@naver.com)

## 학사 일정

- 2.6(수)-8(금) 201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 2.14(목)-18(월) 신입생 수강신청
- 2.22(금)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3.4(월)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개강
- 3.18(월)-22(금) 학위청구자격시험
- 4.8(월) 2012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 4.22(월)-26(금) 중간고사
- 5.15(수) 제 67주년 개교기념일
- 5.21(화) 여름계절수업 수강신청
- 6.12(수) 여름계절수업 등록
- 6.12(수)-18(화) 기말고사
- 6.19(수) 여름계절수업/하키휴가

## 제 1회 인문대학 실내음악회

**제1회 인문대학  
실내 음악회**

일시 | 2012년 12월 20일 (목) 16:00  
장소 | 인문관 412호 대강의실

출연!

- Saxophone연주 : 불어물문학과 박형섭 교수
- Acousticguitar연주 : 언어정보학과 김태호 교수
- 불어물문학과 4인조 밴드
- electric guitar(1학년 김태원), drum(1학년 김승희), bass guitar(1학년 상우세), vocal(1학년 정재윤)
- 한문학과 남성 듀엣(3학년 박성현, 2학년 우원욱)
- 친조 출연 : 공과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차의영 교수 (Clarinet 연주)

주최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음악회는 무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관심있는 부산대인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Contents

## 인문대학-일본 덴리대학 국제학부 간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부산대학교 인문대학과 일본 덴리대학 국제학부는 2012년 12월 14일(금) 양교의 학술 발전을 촉진하고 우호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교는 '강의 및 세미나를 목적으로 한 교원의 교환', '연구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공동기획', '정보, 교재, 출판물의 교환' 등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부산대학교 인문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정식에 우리 대학에서는 김성진 인문대학장, 윤일환 부학장, 일어일문학과 김임숙, 조강희 교수가 참석하였고, 덴리대학 측에서는 요사키와 토시히로 국제학부장과 미쯔오 이사무 국제학부 교수가 참석하였다.

## 중국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서일범 원장 방문



중국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서일범(徐日范) 원장과 2012학년도 1학기 해외우수교수로 사학과에 초빙되었던 강수욱 연변대학 교수가 11월 12일(월) 우리 대학을 방문하였다. 서 원장 일행은 우리 대학의 김성진 학장, 윤일환 부학장, 과학사학과장, 철학과 정해왕 교수, 남덕현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장 등을 만나 양교의 국제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두 대학은 지난 7월 23일(월)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 인문관 주변 꽃무릇(석산) 식재

인문관 현관 앞 원형 화단과 인문대학 교수연구동 주변에 꽃무릇(석산)



산) 3만여 개를 식재하였다. 지난 12월 식재된 꽃무릇은 올 9월이면 붉은 빛으로 만개해 학내 구성원을 위시하여 우리 대학의 명소로서 부산시 근대건조물 1호이자 우리 대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인문관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문관 주변에는 꽃무릇뿐만 아니라 매화, 이팝나무, 능소화, 연산홍, 장미 등 여러 수종이 식재되어 있어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다양한 꽃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문관 층별 로비 독서대 및 의자 설치



인문관 2~4층 로비 원형 창문에 독서대와 의자를 설치하였다. 독서대는 본래의 기능은 물론 너터, 정문 등 학내와 우리 대학교 주변의 경관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게끔 설치되었다. 독서대와 함께 설치된 의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높이 조절 기능이 있으며, 의자의 높이 때문에 기울어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난간과 단단하게 고정시켜 안전성을 높였다. 한편 지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는 60석 전체가 만석이 될 정도로 학생들의 호응도가 컸다.

## 제1회 인문대학 실내 음악회 개최

기말고사가 끝난 12월 20일(목) 그 동안의 스트레스 해소와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실내음악회가 인문관 412호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실내음악회는 김성진 인문대학장의 사회로 불어불문학과 박형섭 교수의 Saxophone 연주, 언어정보학과 김태호 교수의 Acoustic guitar 연주, 한문학과 학생 듀엣, 불어불문학과 학생 4인조 밴드 연주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보컴퓨터공학과 차의영 교수가 찬조 출연하여 Clarinet 연주를 하였다. 인문대학에서는 처음 열린 작은 음악회였지만 출연진과 청중이 다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대학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본 무대였다.

## 인문대 학과장 명단

인문대의 12개 학과 가운데 6개 학과의 학과장과 대학원 협동과정의 전공주임이 교체되었다. 각 학과와 협동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총괄할 학과장과 전공주임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국어국문학과과장 이재봉 교수
- | 중어중문학과과장 김혜준 교수 (신임)
- | 일어일문학과과장 오경환 교수 (신임)
- | 영어영문학과과장 이상도 교수 (신임)
- | 불어불문학과과장 전광호 교수
- | 독어독문학과과장 박정환 교수 (신임)
- | 노어노문학과과장 이용권 교수
- | 한문학과과장 김승룡 교수
- | 언어정보학과과장 권연진 교수
- | 사학과과장 유재건 교수 (신임)
- | 철학과과장 손영삼 교수
- | 고고학과과장 배진성 교수 (신임)
-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협동과정 전공주임 박소영 교수 (신임)

# 어느 번역자의 낮선 여행기를 읽다

김경연

윤여일의 『여행의 사고』(돌베개, 2012) 마지막 권을 다 읽은 것은 타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이었다. 익숙한 삶을 떠나는 일은 4년 만 이었고 시한부의 짧은 외도(外道)였으나, 그마저도 갈등하고 번민하는 시간이 꽤 길었다.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까닭과 다르지 않았으나, 모르지 않으면서도 내내 어리석게 방황했다. 그럼에도 내 자신과 별이는 지루한 밀고 당기기가 기어코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해 겨울 읽게 된 몇 권의 책 덕분이었는지도 모른다. 윤여일의 『여행의 사고』는 이 우연한 독서의 시작이었다. 지난해 12월, 편집자와 필자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윤여일로부터 그의 첫 여행기를 전해 받았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인도와 네팔, 중국과 일본으로 멈추지 않고 유동하며 살았던 그의 시간과 사유가 세 권의 책으로 엮였다. 잠시 숨을 고르듯 여행기를 출간하고는 그는 다시 길 위의 삶을 떠났고, 남미 어디쯤에서 예상하지 않은 서평을 부탁해 왔다. 버거운 기록일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았으나 선뜻 쓰겠노라 약속했던 것은, 아마도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서나마 치열하게 이행하며 정신을 담금질하는 그의 여행/삶에 연루되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타자를 향하는 일이란 결국 자신을 응시하는 일일 터이니, 윤여일의 유동(流動)을 접하는 줄곧 나는 내 불안한 정착 혹은 정지에 관해 자주 생각하곤 했다. 윤여일의 여행기를 읽는 일은 그러니 만만치도 녹록치도 않아 멈추는 때가 잦았고 독서는 하릴 없이 지체되었다.

진정한 인류학자는 “만성적 고향상실자”이며 여행이란 “자기의 마음 속 황야를 살피는 일”이라는 레비 스트로스의 사유를 되읽는 작업으로부터 『여행의 사고』는 시작되고 있었는데, 짐작보다 훨씬 낯선 여행기였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오키나와 홋카이도에서는 유린당하고 잊힌 자들의 도려낸 역사를 기억하는 사서(史書)가 되는가 하면, 인도를 여행하며 석가모니와 불교를 사유하는 장면에서는 묵직한 종교철학자가 되기도 했다. 짧지만 강렬한 루쉰론이자 문학론이기도 하고, 다케우치 요시미나 쉰겨와의 사상적 조우를 기록하며 ‘동아시아’를 공부의 화두로 삼는 과정을 쓴 대목에선 제대로 학문하려는 자의 고투가 읽히는 고백록이 되고, 지식의 육체성이나 윤리성을 질기게 성찰하는 사상서가 되기도 했다. 한 자리에 정지하지 않고 하나의 이름 안에 갇히지 않으며, 부단히 낯선 상황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고 매번 다른 위치로 스스로를 바꾸어내는 『여행의 사고』는 어쩌면 진정한 ‘유동’을 살고 있는, 가장 온전한 의미의 여행서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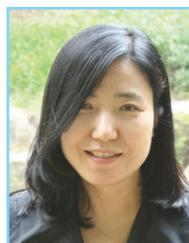
이행하고 변위(變位)하는 이 특이한 여행의 기록 속에서 ‘공부한다’와 ‘여행한다’의 의미는 결코 다르지 않았다. 공부도 여행도 모두

“낮선 맥락과 대면하는 일”이며, 타자들이 구성해온 “복잡한 삶의 결들과 부대끼는” 과정이고, 이 만남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사유의 화두로 삼아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행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균열이 자신의 의식과 감각, 언어로 타자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번역불가능성이 초래한 것이라면, 윤여일이 얘기하는 여행의 사고란 그 흔들림의 고통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거머쥘 태도일 것이다. 도피나 초월을 거절하는 그 결단 속에서 번역불가능함이 유발하는 고통은 마침내 타자를 통해 다른 자신에 이르는 ‘사건’이 되며, 여행/공부란 레비 스트로스의 주해처럼 “나를 둘러싼 황야를 거니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속 황야를 살피는 일”이 된다.

자기를 살피는/응시하는 여행이란 ‘고향’ 안에 안정적으로 거처했던 ‘자기’를 또한 잃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행이란 다시 실향의 기록일 터이며, 고향/자기를 떠나 마침내 고향/자기에 이르는 또 다른 귀향의 기록이기도 할 것이다. 윤여일의 『여행의 사고』를 읽으며 아프게 명료해지던 것은 고향/자기를 떠나는 수행적 모험이 없는 온전히 고향/자기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사실이다. 독서가 유예되고 약속한 서평을 끝내 쓸 수 없었던 연유는 어쩌면 이 버거운 진실과 대면하는 두려움 혹은 부끄러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고향/자기 안에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탈향(脫鄕)이나 탈아(脫我)를 외치는 제 모순을 외면할 수만 있다면 애써 피하고 싶었다.

하나 그 무렵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의 『경계없는 페미니즘』(여이연, 2005)을 읽게 되면서 달아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1984년 찬드라 모한티와 비디 마틴은 각자의 고향인 몸바이와 버지니아를 방문한 후 페미니즘 정치학과 자신이 맺는 관계를 재독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경계없는 페미니즘』에는 이 특별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 귀향의 체험을 빌어서 모한티와 마틴은 “갈등, 상실, 기억, 욕망”의 고향을 다시 불러들이고, 안전·조화·동일성에 기대고 있던 고향이 실은 배제와 억압, 망각의 폭력 속에 구성된 지극히 낭만적이고 “위험천만한” 허구임을 발견한다. 이 쓰라린 자각 속에서 그들을 지탱해온 낯익은 고향/자기는 뜯겨져 나가며 여러 겹의 의미를 지닌 낯선 고향/자기와 새롭게 조우한다.

여행이 반드시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진 않을 것이나, 윤여일과 모한티를 읽으며 장소의 바꿈을 통해서라도 실향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일이 절박해졌다. 이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여행의 사고』 마지막을 읽었고, 루쉰의 『고향』(1921)을 다시 읽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선(迅)이 느끼던 상실감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 잃음이 이행한 희망에 대해 오래도록 재독했다. 떠나야만 접속할 수 있고 다른 나/우리가 생성가능하다. 고향이 아닌 길 위에서, 루쉰의 희망론은 처음 그렇게 읽혔다.



필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문과 교수  
문학비평 전공

## 학과/연구소 소식

### 국어국문학과



2012년 10월 20일(토) 부산대학교 주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관으로 제14회 전국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이 열렸다. 193개 고등학교에서 649명(산문부 236명, 운문부 413명)이 참가하였으며 엄격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14명의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글제는 '담' (운문)과 '낙서' (산문)였으며, 장원은 경기 고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전수명 학생이 수상하였다. 11월 17일(토)에 있었던 국어국문학과 학술제는 동학과 학술동아리 3개 분과와 동문초청 취업특강으로 꾸며졌다. 고전문학연구회는 「고려속요와 현대 대중가요 속의 민중적 정서에 대한 고찰」, 귀성문학연구회는 「현대 문학 속 외국-서구 인식을 중심으로」, 배달말 연구회는 「신조어의 형성 양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각각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논문 발표 후의 취업특강은 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었다.

### 중어중문학과

교내 대외교류본부에서 지원하는 '학과/대학단위 학생파견사업'에 중문과가 정규/계절학기 모두 선정이 되어 동계계절학기과 2013학년도 정규학기에 중문과 학생 및 중문과 부·복수전공 학생들을 상해 화동사범대학으로 파견했다. 동계계절학기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은 모두 26명(남학생 8명, 여학생 18명)으로 1월 6일(일)에 출국(서정희/강식진 교수 인솔)하여 1월 25일(금)에 귀국하였고, 2013학년도 정규학기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은 모두 8명으로, 2월 24일(일)에 출국하여 7월 6일(토)에 귀국할 예정이다.

###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에서는 답사의 계절 가을을 맞아 11월 15일(목) 진주성 → 진주 농민 항쟁 기념탑 → 통영 달야 공원 → 거가대교 일정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진주·통영 일대를 둘러보며 일본과 관련된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탐방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답사를 통해 교수와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상산업번역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에서는 10월 4일(목) 고려대학교 불문과 이영훈 교수를 초청해 「번역가의 아비투스 와 젠다: 『제2의 성 Le Deuxième sexe』 한국 초역자 이용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10월 17일(수) 사대부고의 협조요청으로 사대부고 학생들이 학과 탐방을 하여 학과소개 및 진학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영어영문학회는 12월 11일(화)~14일(금) 벅스코에서 열린 한국영어영문학과 국제학술대회를 후원하고 토론 및 발표에 참여하였다. 11월 8일(목) 동학과 학부생들을 위해 진행된 취업특강에서는 영문과동문 김기원(96학번/헤드헌터)과 이이슬(00학번/KBS기자)이 함께하여 생생한 취업노하우를 전했다. 11월 24일(토) 영문과 교수와 학생들은 금정산 일대로 가을 정기산행을 다녀왔으며, 11월 30일(금)에는 영문인의 밤 행사가 있었다.

###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는 2012년 11월 24일(토) 인문관 시습관에서 동문 및 재학생, 학과교수 60여명이 참석한 '불문인의 밤' 행사를 마련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에서는 매년 12월 Weihnachtsfest, 즉 크리스마스파티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독일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2월 21일(금) 오후 5시 인문관 206호에서 Weihnachtsfest가 열렸다. 학생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포도 존에서 사진 찍기, 독일노래 부르기, 독일관련 퀴즈 맞추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012-2학기를 끝으로 독일로 돌아가는 닐스 레쉬케(Nils Reschke) 객원교수, 알렉산더 슈타인호프(Alexander Steinhof) 외국인 어학강사의 송별회도 아울러 마련되었다.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는 10월 22일(월) 「한·러 외교관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러시아 총영사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동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11월 30일(금) 선후배 학생들이 합심하여 한 달간 연습하고 준비한 노문인의 밤이 열렸다.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된 노문인의 밤 1부는 러시아소개 영상, 취업특강 등 노문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들로 준비했고, 2부는 학과 동아리의 공연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문학과



한문학과에서는 12월 4일(화) 「인문의학세미나 <몸+마음>」이라는 제하에 전통의학과 한문학이 만나는 접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한문학과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를 통해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 고찰하였다. 12월 21일(금)에는 동학과의 '전통의학 학술답사'가 있었으며, 한문학과 한의학, 두 학문 간의 융복합 취지하에 조선시대 말기의 한문학자이자 한의학자인 '석곡 이규준의 생가 및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 권순복 교수의 '일반음성학'이 '대학 100대 명강의'에 선정되어 수상함과 동시에 방송에서 소개되었다. 권순복 교수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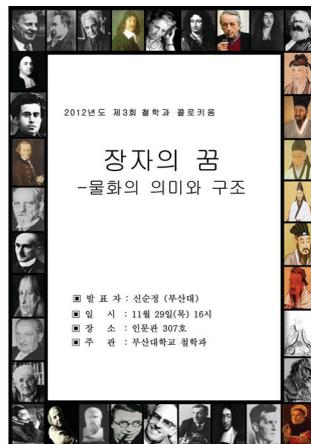
기를 통한 목소리(음성) 분석과 음향음성학적인 이해와 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학생 본인들의 구체적인 음성분석 활동과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수업이해도를 높이는 등 학생 입장의 사고와 소통에 노력해왔다. 언어정보학과는 또한 12월 10일(월)~11일(화) 한국코퍼스언어학회, 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코퍼스언어학회 창립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2월 27일(목)~29일(토) 경남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에서 2박3일간 열린 동학과의 산장학교에서는 30여명의 학과재학생을 중심으로 선후배 학생과 교수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학과



사학과는 2012년 11월 10일(토) 본교 산학협력단의 후원 하에 한국고대사학회, 한국민족문화연구소와 함께 한국고대사학회 129회 정기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고대사의 제문제'라는 대 주제 하에 총 3부로 진행되어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나누었다. 사학과 학부생대표단은 12월 23일(일)~24일(월)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부산대-경북대 공동학술제에 참석하였는데 이 행사는 양교 학부생 간의 교류와 학술적 행사를 통해 장차 학과발전과 개개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향상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동학과 학년별로 문화유적답사가 진행되었다. 1학년 학생들은 경주시 일대를 중심으로 답사를 실시하였고, 2학년 학생들은 김해시와 창녕군일대를 답사하였으며 3·4학년 학생들은 통영시 일대를 중심으로 답사를 하였다.

철학과



철학과는 11월 29일(목) 부산대 신순정 선생을 모시고 "장자의 꿈 -물화의 의미와 구조"라는 제목의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교수와 학생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자의 나비의 꿈을 소재로 장자 사상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물화(物化)'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신순정 선생은 물에 대한 분별지에서 밝음, 오상아(悟喪我)의 과정을 통해, 상대적인 인식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통일의 의미에 대한 문제, 개념적 인식에 대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 학과/연구소 소식

## 고고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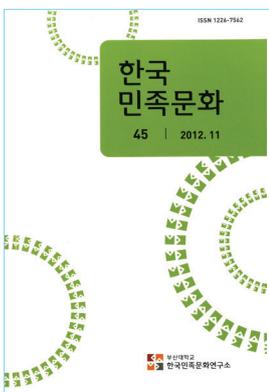
고고학과에서는 10월 9일(화)~13일(토)까지 중국 서안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교수 및 대학원생 등 총 35명이 참가하였으며 진시황릉, 섬서 고고연구원, 섬서 역사박물관 등 주요 유적 및 박물관을 답사하였다.

## 인문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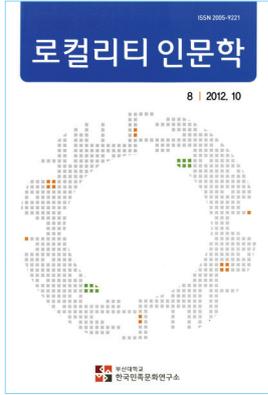


인문학연구소는 10월 29(월)~30일(화) 「경계, 언어, 문화 : 디아스포라의 언어와 문화」라는 제하에 제5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역사, 인종, 다문화, 문학, 언어, 이종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진행된 네 차례(13회~16회)의 연속기획특강은 각각 「제3세계 페미니즘과 서발턴」, 「골치덩어리, 부적절한 정념, 그리고 정동」, 「E.H. 카와 소비에트 러시아」, 「포스트제국시대의 제국의 레토릭-글로벌리즘과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라는 주제로 열려 한국과 일본의 연구진들이 강연을 하였다. 11월 22일(목) 오후에는 점필재연구소와 함께 연구단 학술발표회를 주최하였다.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10월 13일(토)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와 함께 「임진란과 경제-경제사와 군사사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제하의 공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월 25일(목) 제11회 해외석학 초청세미나는 「도덕으로 본 세계화」(독일 빌레펠트대학 요르크 베르크만 교수)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10월 31일(수)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연계 파리유네스코 초청회의(「변화의 서사:



인문학적 상상력과 미래」)와 11월 2일(금)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연계 초청강연회(「동반 성장인가? 독일 통일의 과정과 문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콘라드 아라우쉬 교수)도 아울러 마련되었다. 11월 10일(토) 한국민족문화연구소와 함께 「한국고대사의 제문제」(한국고대사학회), 「조선시대 국제관계의 변화와 제양상」(한일관계사학회)이라는 양대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하였다.

12월에는 해항도시 5개 대학 연구소와의 공동국제학술회의(주제: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문화와 예술」)와 역사문화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주제: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로컬리티」)도 있었다. 동 연구소와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이 함께 하는 시민강좌와 열린 인문아카데미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는 12월 5일(수)~8일(토) 밀양시립박물관과 밀양시청에서 '2012 밀양 인문주간'을 개최하였다. '인문주간'은 한국연구재단이 2006년부터 매년 '열림과 소통'이라는 큰 주제 아래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인문학 관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인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점필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5년 연속 인문주간을 경남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인문주간은 한국연구재단 일정과는 달리 「인문고전의 미래, 협력과 상생으로 작은 문화도시 밀양에서 꿈꾸다」라는 주제로 점필재연구소 자체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후원하는 행사도 포함되었다.

###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동문회 장학금 기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동문들이 부산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 국어국문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기부하였다.

- | 박선자, 이현홍 교수 : 각 500만원
- | 최규수, 조태흠 교수, 김성진 동문(한문학과 교수) : 각 100만원
- | 이재봉, 고현철, 김려실, 김경연 교수 : 각 50만원
- | 공옥식 동문 : 30만원
- | 문두주, 최혜정 동문 : 각 20만 원
- | 김한용, 박혜영, 김양숙, 김경리, 이호종, 김종영, 최영선 동문 : 각 10만원
- | 김은경 동문 : 5만원

### 동문소식단신

| **배재정** 동문(영문 86,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2013년 1월 13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다.



###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 국외파견

- 임상택(고고학과) | 미국 오리건대학교, 1년(2013.1.21~)
- 권순복(언어정보학과) | 미국 메인대학교, 1년(2013.3.3~)
- 박형섭(불어불문학과) | 콜레주 드 프랑스, 1년(2013.3.1~)

#### 연구년 B

- 윤화영(영어영문학과) | 1년(2012.9.1~)
- 김종수(독어독문학과) | 미국 듀크대학교, 1년(2012.9.1~)
- 한태문(국어국문학과) | 1년(2013.3.1~)
- 채상식(사학과) | 1년(2013.3.1~)
- 김옥영(일어일문학과) | 1년(2013.3.1~)
- 서정희(중어중문학과) | 1년(2013.3.1~)
- 박준건(철학과) | 1년(2013.3.1~)

### 교수동정단신

| **김려실** 교수(국어국문학과)는 10월 12일(금)~14일(일) 일본대학 문리학부의 미사와 마미에 교수가 개최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 **박소영** 교수(국어국문학과)가 1월 1일자로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장에 임명되었다.

| **한태문** 교수(국어국문학과)는 11월 14일(수)~15일(목) 일본 규슈대학과의 공동강의의 일환으로 규슈대학 측 강의 차 출국하여 “한일 관계의 도전과 미래”에 관한 강의를 하였으며, 일본문화교류기금의 지원으로 히로시마대학 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의 초빙교수로 2013년 4월부터 1년간 파견을 가게 되었다.

| **김혜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10월 26일(금)~28일(일)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디아스포라문학 국제학술회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를 하였다.

| **남덕현** 교수(중어중문학과)와 **이상도** 교수(영어영문학과)는 10월 21일(일)~23일(화) 한국어강좌 중국 여학연수생의 지역 다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경대학을 방문하고, 북경지역의 교육기관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국제언어교육원을 홍보하였으며 **남덕현** 교수는 12월 23일(일)~26일(수) 재차 중국을 방문하였다.

| **박기성** 교수(영어영문학과)가 1월 1일자로 국제언어교육원장에 임명되었다.

| **배만호** 교수(영어영문학과)가 3월 1일자로 학생처장에 임명되었다.

| **윤일환** 교수(영어영문학과), **인성기** 교수(독어독문학과), **김승룡** 교수(한문학과)가 3월 1일자로 교수 승진을, **서영건** 교수(사학과)가 부교수 승진을 하였다.

## 교수동정/신간소개

| **전광호** 교수(불어불문학과)가 3월 1일자로 부산대 언론사 주간에 임명되었다.

| **권순복** 교수(언어정보학과)의 '일반음성학' 강의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방송(SBS)이 공동주관으로 선정·시상하는 '대학 100대 명강의'에 선정되어 '100대 좋은 대학강의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2월 13일(수) SBS 특집프로그램 '대학 100대 명강의' 방송에 소개되었다.

| **김인택** 교수(언어정보학과)는 10월 16일(화)~24일(수) 에스토니아 타르투대학교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 국제학술대회 참석하여 논문 발표를 하였다.

| **김태호** 교수(언어정보학과)는 10월 30일(화) 부산디자인센터 6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제13차 부산공간포럼에서 「상호 소통되는 미디어란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11월 13일(화)~19일(월) 소르본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하기 위해 프랑스에 다녀왔다.

| **최덕경** 교수(사학과)는 10월 19일(금)~22일(월) 남경농업대학 창립 110주년 기념 경축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농업학과 발전논단" 강연자로 중국에 다녀왔으며, 12월 15일(토)~22일(토) 다시 중국에서 "농업기원과 전파" 국제학술회의에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 신간소개



### 『대령의 사진』

외젠 이오네스코 지음, 박형섭 옮김, 서울, 지식음반드는지식, 2012

박형섭 교수(불어불문학과)는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어 작가 외젠 이오네스코의 소설집 『대령의 사진 La Photo du colonel』을 우리말로 번역해 펴냈다. 이오네스코는 부조리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일곱 편의 장, 단편소설을 발표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대령의 사진』은 1962년 파리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이야기들 récits'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깃발」, 「대령의 사진」, 「공중보행자」, 「의무의 희생자」, 「코뿔소」, 「수령」, 「1939년 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설들은 동명의 희곡들 「코뿔소」, 「공중보행자」, 「의무의 희생자」 등의 원천이기도 하다. 소설 속의 유머와 환상, 몽환적 분위기 등은 연극과 유사하지만 논리적 전개는 잠재적이며 불연속적 리듬, 우의적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 어떤 작품은 연극적 대화와 연극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가 연극의 설계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오네스코의 연극과 소설은 상호텍스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스타일의 글쓰기를 시네로망처럼 연극적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오네스코 자신도 연극 무대를 상상하면서 소설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